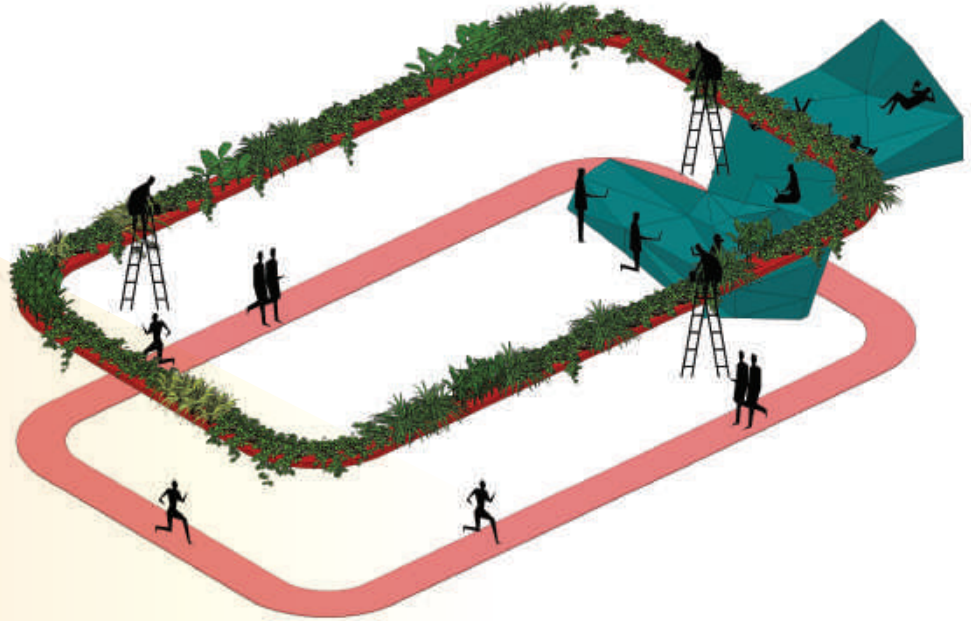




건강한 그리너리 오피스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Headquarters

How to design

식물을 심은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해 직원 간 소통을 도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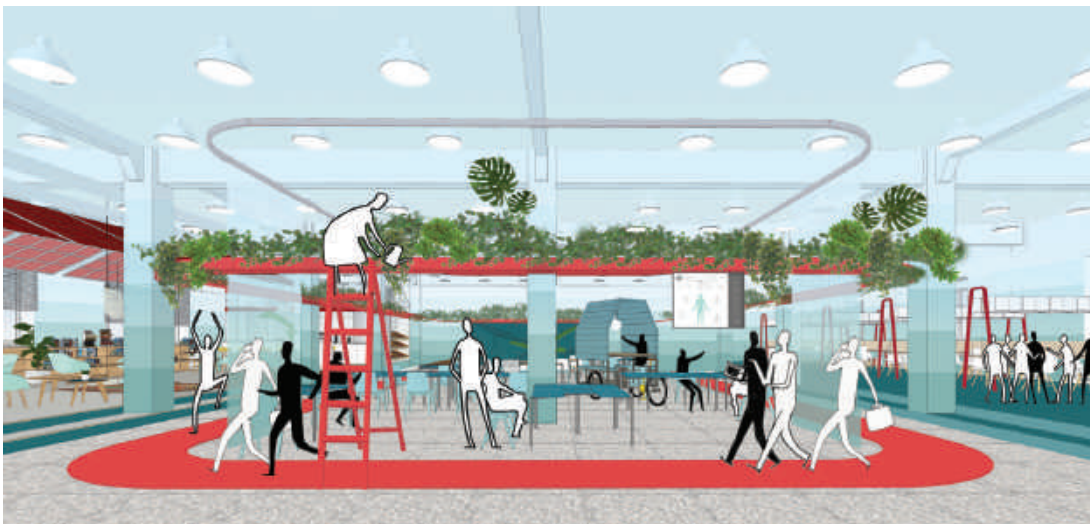
Design / People's Architecture Office

Location / Beijing, China

Area / 1,100m²

Photograph / People's Architecture Office, Jing Weiqi

오피스 환경은 일의 능력, 사내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갖춘 환경은 업무 능력 향상과 유연한 사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회적 혁신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은 최근 본사 오피스를 효율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식물을 테마로 선택했다. 오피스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직업 훈련, 농업 연구, 유치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업, 재단 등과 공유하는 형태다. 한 지붕 아래 가지각색의 기업을 묶기 위해 식물이 심어진 거대한 링 조형물이 오피스 중앙에 도입됐다. 싱그러운 푸르름이 채워진 오피스 덕분에 직원들은 더욱 활동적으로 움직였으며, 일의 능률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에서 다른 부서는 물론 타 기업과 교류가 시작돼 건강한 사내 문화가 깃들었다.





중앙 공간은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꾸며졌다.





움직임을 유발하는 트랙으로 직원의 신체 활동을 도모했다.

탁 트인 오피스는 공용 중앙 공간과 개별 작업·휴식을 위한 사이드 공간으로 나뉘는데, 생기 있는 색감과 푸르른 식물의 조화로 에너지 넘치는 인테리어를 보여준다. 내부로 들어서면 중앙에 위치한 붉은 색의 거대한 행잉 조형물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링 모양의 조형물은 공기 여과 시스템과 식물을 재배하는 화단을 갖췄는데, 조형물 위에 부착된 모니터에서는 실내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원은 일을 하는 중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식물을 재배하거나 다른이와 소통하는 등 자연스러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 재배된 채소와 허브는 점심 식사에 사용된다. 조형물 바로 아래에는 같은 모양과 색상의 레일 트랙을 그려 넣었는데,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했다.



여유롭게 업무를 보거나 편안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조형물.

이 트랙은 직원들이 오피스 내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다기능 장소인 트랙 중앙 공간에는 워크숍, 대규모 미팅, 강의, 공연 등 상황에 맞게 테이블과 의자를 유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여기서 별도의 회의 공간을 조성할 때 사용되는 캐노피는 자전거 바퀴가 달려있어 재미를 붙여넣는다. 중앙 공간의 한 켠에는 산을 닮은 거대한 조형물이 자리한다. 입체적인 매스에 녹색 패브릭을 입힌 조형물은 여러 각도의 표면을 지녀 직원들이 눕고 기대는 등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편, 사이드에 배치된 작업 공간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실루엣의 테이블을 배치하되 붉은 프레임으로 전체적인 통일감을 줬다. 미니 키친과 라운지로 이루어진 휴식 공간은 붉은색 행잉 캐노피와 플랜트, 팬던트 조명으로 감각적으로 연출됐다.





사이드의 작업 공간은 각 기업의 성격에 맞게 꾸며졌다.



자전거 바퀴가 달린 캐노피는 공간에 유쾌함을 불어넣는다.



60cm 간격으로 그려진 벽의 그라데이션 라인은 각 높이의 자세에서 소비하면 줄을 권장 시간을 제한한다.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휴식 공간.

